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지리적 의미에 관한 연구*

정주연¹⁾ · 이혜은²⁾

A study on the Geographical Meaning of the Alldre Airfield*

Ju Yeon Jeong¹⁾ · Hae Un Rii²⁾

요약 : 제주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에 의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제주도 최초의 비행장이다. 1933년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하고자 일본 해군에 의해 조성되었던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항공기지로 이용되었다. 이는 당시 알뜨르 비행장이 중국–일본과 한국을 잇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상 그 활용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재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사유적지인 알뜨르 비행장은 활주로, 격납고, 지하벙커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알뜨르, 비행장, 항공기지,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근대문화유산

Abstract : Alldre airfield located in the southwest of Jeju island is built as the first airfield in Jeju island for the military purpose by Japanese Nav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is airfield was constructed as an emergency landing place and used as airbase for the Chino-Japanese War and the 2nd World War. It is because Alldre airfield was located in the important site among China-Korea-Japan from the geographical perspectives and was high-valued place for the military purpose in terms of its usage. Furthermore, it is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as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This indicates that Alldre airfield consisting of runway, aircraft hangars and underground bunker is also important as cultural heritage.

Key words: Alldre, Airfield, Airbase, Japanese Occupation Period,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Modern Cultural Heritage

1. 머리말

일본이 강점을 했던 36년이라는 과거가 있었기에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군사유적지이다. 군사유적지는 비행장과 격납고 시설, 고사포 진지, 동굴 진지, 해안특공기지, 지하벙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 많이 남아 있다. 군사유적지의 하나인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군이 만든 해군 비행기지로 활주로, 격납고, 지하벙커로 구성되어 있다. 알뜨르 비행장 내에는 등록문화재가 세 건이나 분포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 39호인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록문화재 제 312호인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등록문화재 제 316호인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제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 1)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지리학과 석사과정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Geography,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dalkistoy@naver.com
- 2)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huri@dongguk.edu

일제 고사포 진지가 그것이다. 알뜨르 비행장 내에 이렇게 3건의 등록문화재가 분포한다는 것은 알뜨르 비행장이 문화재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는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지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활주로가 대한민국 공군에서 현재도 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고 비상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왜 제주도에 알뜨르 비행장이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 역할과 기능을 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현지답사가 병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일본의 군사배치관련 문헌과 알뜨르비행장에 관련된 문헌이 주를 이루었다. 현지답사는 알뜨르 비행장과 히로시마를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알뜨르 비행장 현지답사는 2013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되었던 히로시마는 2013년 1월에 방문하여 현지답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일본군의 배치와 지리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이용하였다.

2. 알뜨르 비행장의 지리적 배경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7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속칭 '알뜨르 평야'에 조성되어 있다 (그림 1). 모슬포는 바람이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의 바람코지(곶)이라 바람때문에 살기 힘들다 하여 못살포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었다. '알뜨르'는 제주도 방언으로 '아랫벌판'으로 알뜨르 평야는 평평한 아랫벌판이다. 현재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모슬봉이 알뜨르 비행장에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바굼지오름, 산방산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송악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넓은 바

다가 펼쳐져 있다. 바다와 가깝고, 대부분의 지역이 넓고 평坦한 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평한 아랫벌판은 비행장을 건설하기에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었다.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행장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은 해군항공대가 본격적으로 주둔하려는 목적보다는 항공기가 오고가다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중간 기착을 해야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알뜨르 평야에 비행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목적을 위해 대정면 상모리와 하모리의 토지 60,242평을 1932년 8월 9일부터 1933년 3월 10일에 걸쳐 매입하였고 알뜨르 평야에 '제주도비행기불시착륙장'을 조성하였다(조성윤, 2012).

우리가 흔히 만주사변이라 부르는 '탸오후 사건'을 구실삼아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여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일본군은 중국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일본해군이 알뜨르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 비행장을 불시착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중국대륙을 침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모슬포에 비행장을 만든 것(조성윤, 2012)으로 파악된다. 특히 모슬포 지역은 제주도 남서부 지역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알뜨르 평야의 지리적 위치는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고, 주변에 모슬봉, 바굼지오름, 산방산, 단산, 송악산이 있으면서 평평한 평야이며 직선거리로 6km가 안되는 인접한 곳에 천연항인 화순항도 있다. 제주도 최초의 비행장이 알뜨르에 조성되었을 것이며 순전히 군사적 목적에서, 그것도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일본 해군이 조성한 것이다. 군사적 목적에 의한 알뜨르비행장은 1933년도에 처음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할 당시에는 6만평의 규모였으나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해군은 적극적으로 이 비행장을 활용하기로 작정하고, 증설계획을 세웠다(조성윤, 2012). 이 과정에서는 토지 매입이 불과 한 달 반사이에 모두 완료될 만큼 시급하게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규모는 14만평을 넓혀 모두 20만

평 규모가 되었다.

그런데 증설 공사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 남경 등 중요 도시를 폭격하는, 이른바 도양폭격의 중심 기지가 된다. 도양폭격이란 바다를 건너서 폭격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일본군대는 육군과 해군만 있고 공군이 없었기에 일본해군은 도양 폭격도 할 수 있었다. 엄밀히 따지면 알뜨르 비행장은 알뜨르 항공기지였다. 육군이 만든 것은 비행장으로 해군이 만든 것은 항공기지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본토 폭격을 위해서 일본 해군은 여러 지역의 항공대를 모아 제1연합항공대를 편성하였다. 1차 목표로 난징을 공습하기 위해 나가사키현의 오오무라 항공기지로 이동 집결했다. 오오무라 항공기지가 중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폭격기가 이곳에 모여 출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폭격기의 비행 가능 거리 때문에 오오무라 항공기지에서 이륙하여 난징을 폭격한 다음에는 제주도 항공기지인 알뜨르 비행장에 착륙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난징·상하이로의 해양폭격 거점은 제주도로 옮겨져, 제주에서 출발해서 폭격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도로부터의 난징 공습은 36 회, 연 600기, 투하폭탄 총계는 300톤에 이르고 그 결과 난징의 많은 시민이 살상되었다. 그러나 1937년 11 월에 일본군이 상하이 부근을 점령하여 그 곳에 비행장을 마련하면서 오무라해군항공대의 본거지는 상해로 이동하였고, 제주도 항공기지는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연습항공대가 설치되었으며 확장공사는 계속되었다(조성윤, 2012).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중국에 위치한 항공기지와 폭격지점은 <그림 2>와 같다.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알뜨르비행장은 다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20만평의 부지에 세웠던 항공기지를 60만평 규모를 더해서 80만평의 엄청나게 넓은 규모로 확장이 계획되었다. 이는 알뜨르비행장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오오무라 항공기지의 규모와 같은 것이었다. 제주



<그림 1> 알뜨르 비행장의 위치

출처: 네이버지도



<그림 2>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한 항공기지와 폭격지점

출처: 구글지도

도 알뜨르 비행장을 일본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공기지와 같은 규모로 키우겠다는 것은 태평양전쟁에서 점차로 커져가던 항공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해군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공사는 전쟁 막바지까지 계속되었다(조성윤, 2012).

3. 일제 전적지로의 알뜨르비행장

1) 알뜨르 비행장의 중요성

문화재청에서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는 20건의 등록문화재 중에 13건이 일

제군전적지에 관한 것으로 알뜨르비행장 뿐만이 아니라 제주지역에는 일제 전적시설이 곳곳에 보인다.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지역 일제 전적시설의 분포와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이 중 등록문화재 제 39호인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록문화재 제 312호인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등록문화재 제 316호인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고사포 진지가 알뜨르 비행장에 위치한 것이다. 그리고 섯알 오름 일제 동굴진지,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모슬봉 일제 동굴진지,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는 모두 모슬포에 위치한 것으로 제주지역 일제 전적시설 중 5건이 모슬포에 위치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모슬포가 생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알뜨르비행장에 위치한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는 1937년에 건립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격납고이다. 당시에는 20기가 건설되었지만 지금은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잔해만 남아있다. 제주도를 일본군의 출격 기지로 건설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진지를 구축하려 했던 인공동굴은 많이 있으나 다량의 지상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이것이 유일하다(문화재청 홈페이지). 비행기 격납고는 아카톰보와 다른 연습용 비행기를 집어넣기 위한 시설물이었다. 비행기 격납고 중 한 개의 격납고(사진 1) 옆에 안내표시판(사진 2)이 있어서 격납고에 관한 설명을 볼 수 있었으며 격납고와 안내표시판의 배치는 <사진 3>과 같다. 격납고에서 본 풍경(사진 4)으로 평평한 아랫벌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비행기 격납고 전경(사진 5)을 볼 수 있다.

알뜨르 비행장에는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지하벙커가 있다. 일제지하벙커는 1945년 무렵에 비행장을 확장하면서 만든 일본 해군 비행장의 부속 시설로 콘크리트 구조체를 만들고 위쪽에 돌무더기를 쌓아 동산처럼 만든 다음 나무 등으로 가려 숨겨 조성하였다. 일본이 제주도를 군사 기지화하였던 침략의



등록번호	명칭	지정일
1	제 39호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2002.05.31
2	제 306호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3	제 307호 어승생야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4	제 308호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5	제 309호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6	제 310호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7	제 311호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8	제 312호 알뜨르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2006.12.04
9	제 313호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10	제 314호 모슬봉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11	제 315호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2006.12.04
12	제 316호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 진지	2006.12.04
13	제 317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2006.12.04

<그림 3>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제주지역 일제 전적시설의 분포와 현황

출처: 문화재청, 구글지도

증거물이라는 설명의 안내표시판(사진 6)이 있으며 입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사진 7). 일제지하벙커(사진 8)는 <사진 9>처럼 내부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내부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일제지하벙커에서는 <사진 10>의 급수대가 보인다. 당시 비행기는 프로펠라 비행기가 대부분이어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착륙 또는 이륙하는 방향을 수시로 바꿔야 했다. 사방으로 뛰고 내릴 수 있어야 했으며 비행기가 많지도 않았고 관제탑에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으므로 해방후 한국육군에 의해 설치된 급수대였다고 추정되고 있다(조성윤, 2012).

알뜨르비행장의 활주로는 사진 11처럼 지금도 원



<사진 1> 안내표시판 옆의 비행기 격납고



<사진 2> 격납고 안내표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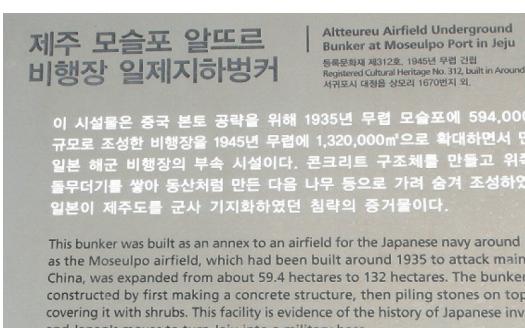
<사진 3> 격납고의 옆모습과 안내표시판



<사진 4> 격납고에서 본 풍경



<사진 5> 비행기 격납고 전경



<사진 6> 지하벙커 안내표시판



<사진 7> 일제지하벙커 입구



<사진 8> 지하벙커 진입로와 안내표시판



<사진 9> 지하벙커 내부모습



<사진 10> 급수대



<사진 11> 알뜨르 비행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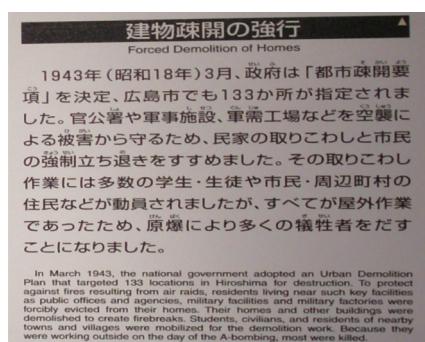
<사진 12>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의 경고문



<사진 13> 활주로의 무선 조종비행기



<사진 14> 1940년 지도에 보여시는 시설



<사진 15> 히로시마 평화전시관 설명

래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활주로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아직도 훈련등에 활용하고 있고 비상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또한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에는 <사진 12>와 같은 경고문을 볼 수 있고, 현재 공군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민간인이 무선조종비행기를 활주로에서 조종할 수 있다(사진 13). 현재도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군사지리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히로시마 전적지와의 비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여려 가지 이유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본을 초기에 항복시켜 미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후에 세계에서 소련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원자폭탄 투하 후보지역은 고쿠라, 히로시마, 니가타, 교토에서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로 바뀌었다. 결국 히로시마가 첫 번째 원자 폭탄투하지역이 되어 2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2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나가사키가 두 번째 원자폭탄 투하지역이 되어 17만 명의 사상자와 1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주코쿠(中國) 지방 최대의 도시로 바다, 강, 산으로 둘러싸인 삼각주에 위치한 히로시마는 청일전쟁 때부터 군사적인 도시였다. 1894년 9월 전시 중 또는 사변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인 대본영(大本營)이 옮겨갔고, 히로시마역에서 우지나항까지 군용철도가 깔렸다. 1920년대부터 중공업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930년대 말부터 군사 생산 공장으로 변모되었다. 히로시마는 군사도시로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군사시설과 공장이 있었다. 1940년도의 히로시마 지도에서는 군사시설을 직접 찾아볼 수는 없었으나 청일 전쟁 때 만들어져서 계속 이용되고 있는 히로시마역과 우지나항을 잇는 군사철도와 육군병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사진 14). 1943년 도시 피난 요강에 의해 히로시마에도 133개소가 지정되었다. 관공서와 군사 시설, 군사 공장 등을 공습에 의한 피해로부터

터 보호하기 위해 민가의 철거를 진행하고 진지화하였다(사진 15). 미군은 규슈와 혼슈를 잇는 군수물자 보급과 교통 흐름의 차단과 조기 항복시키고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당시에 히로시마에서는 폭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민가의 철거와 진지화 작업을 하느라 야외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 피해가 더욱 커다고 한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알뜨르 비행장도 원자폭탄 투하 고려대상이었다고 한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난 뒤에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알뜨르 비행장도 원자폭탄 투하지역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히로시마가 군수물자 보급과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알뜨르 비행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안 전지거점 지역으로 진지화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알뜨르 비행장과 그 주변은 비행장 규모가 66만 7천평으로 확대되고, 모슬봉에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었으며 미군 공격으로부터 사람과 물자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기지 지하 격납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군의 상륙에 대비한 사령부 등 군사 주요시설의 지하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쟁도진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설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군과 미군에게 그만큼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4. 맷음말

알뜨르 비행장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비행장이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해군에 의해 처음 계획될 때부터 중국과의 전쟁을 고려한 군사지리적 의미를 가진 비행장이었다. 알뜨르 평야는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고, 주변에 모슬봉, 바굼지오름, 산방산, 단산, 송악산이 있으면서 평평한 평야이며 직선거리로 6km가 안되는 인접한 곳에 천연항인 화

순항이 있다는 점에서 1933년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하고자 일본 해군에 의해 6만평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해군은 알뜨르 비행장을 20만평의 규모로 확장하고자 계획하였다. 알뜨르 비행장은 폭격기 등의 굽유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중국과 가까운 제주도 남서부에 위치한 비행장이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중국 남경 등 중요 도시를 폭격하는 도양폭격의 중심 기지가 되었다. 1937년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하고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본거지가 상해로 이동하였으나 알뜨르 비행장은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연습항공대가 주둔하였고, 확장공사는 계속되었다.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철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오오무라 항공기지의 규모와 같은 80만평으로 확장공사를 지속하였다. 이 확장공사는 태평양전쟁에서 점차로 커져가던 항공전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해군이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지역 일제전적시설 중 13건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5건이 모슬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 모슬포가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되었고 특히 알뜨르 비행장의 활주로는 현재도 공군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뜨르 비행장이 갖는 군사지리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알뜨르 비행장은 일본에 의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으로 건설되었다. 이는 지리적 위치상 알뜨르 비행장이 중국·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요 지점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의 군사적인 목적상 그 활용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広島県大百科事典刊行委員会, 1982, 『中国出版社 広島県大百科辞典』, 中国新聞社.
- 김원복,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정은, 백지현, 김선경, 서일수, 이승윤, 2010,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11: 제주도 독립운동사적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외, 2008,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보고서.1』, 보고서.
- 제주도·제주예총, 1995, 『광복 50주년, 오늘에 남아있는 日帝의 흔적들』
- 조성윤, 2008,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조성윤, 2012, 「알뜨르 비행장: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Vol.41, pp.395-43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合名會社 廣文館, 大廣島市街地図1940発行, 1940.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 구글 지도 <https://maps.google.co.kr>

투고일 2013. 10. 30

수정일 2013. 12. 29

확정일 2013. 12. 31